

### 중생의 고통 · 번뇌 벗어나게

#### 이렇게 들었다

#### 부처님 오신뜻

밀레니엄버그, 유고공공, 각종 비리사건, 수많은 컴퓨터바이러스, 엘니뇨와 자연재해...

2천년을 앞두고 서로 다른 이름과 모양의 혼란과 혼돈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2천5백여년전 부처님은 혼란과 혼돈의 사바세계인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셨다. 지혜와 생명의 가르침을 현아를 안고 말이다. 22일은 부처님 오신날이다. 모든 불자들은 교조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혼란과 혼돈의 사바세계를 청정한 정토의 세계로 일구어 가자. 그래서 밀레니엄버그, 유고 전쟁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밀레니엄버그와 수많은 번뇌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오신 큰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니 어둠의 세계속에서 불사(不死)의 복을 올리리라." (사분율)

부처에게서는 번뇌의 악함과 번뇌를 끊음의 청정함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중생들의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름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중생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중생들의 갖가지 세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진리의 궁극적인 경계를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한 생에서 수백 생에 이르기까지의 지나간 세월의 일들을 사실대로 아는 지혜가 있다. 천안(天眼)을 얻어 미래세의 세계를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모든 번뇌를 끊어 마음이 해탈하고 현세에서 스스로 자신이 증득(證得)한 줄 알아서 다시 윤회(輪廻)하지 않음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받들어 공양해야 할 사람이 셋이 있다. 부처인 나와 나의 제자와 진존성왕 이니라. 왜 부처에게 공양해야 하는가? 부처는 항복하지 않는 사람을 항복케 하고, 제도되지 못한 이를 제도하며, 해탈하지 못한 이를 해탈케 하며, 열반하지 않은 이를 열반케 하고, 보호할 이 없는 이를 보호하고, 장님에게 눈이 되어 주고, 병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기 때문이다. 부처는 악마나 천신보다 뛰어났으니 가장 훌륭한 복전(佛前)이요, 공경할 만하고 귀하게 여길만 하니라.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증일아함경>

"만약 내가 중생의 여러 악한 마음을 깨뜨려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아비지옥(阿鼻地獄)에 있을 때 무량겁(無量劫)에 걸쳐, 중생때문에 큰 고뇌(苦惱)를 받게 된다 해도 고통으로 알지는 않으리라." <열반경>

완전대 중생으로 하여금 늘 편안하고 즐거워 갖가지 병고(病苦)가 없게 되기를, 악한 짓을 행하고자 하면 그 모두가 이루어지지 않고, 닳는 바 선업(善業)은 다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모든 악취(惡趣)의 문을 닫아 걸고 인천(人天) 열반(涅槃)으로 이를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게 되기를, 만약 중생들이 여러 악업을 쌓은 탓으로 온갖 극중(極重)한 고통을 당할 때에는, 내가 대신 받아 줌으로써, 그들이 해탈을 모두 얻어 지상(至上)의 깨달음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기를. <화엄경>

나의 법은 현재에서 모든 번뇌를 떠나며,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통달하여 밝게 보며, 자기를 인연하여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요. 나는 언제나 중생의 벗이 되어 중생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늙음, 병, 죽음과 근심, 걱정, 슬픔의 번뇌를 떠나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에서 그 고뇌를 벗어나게 하며 보고 통달하여 스스로 깨달아 증득하게 하오. <잡이함경>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사람.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고 위없는 지혜를 성취하였거늘 누가 나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 스승이 없고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견줄 자 없도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요,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부처이니라. 모든 감정으로부터 고요함을 얻었고, 홀로 열반을 증득하였다. 이제 진리의 왕국을 세우고자 베니레스의 카시로 가노

우리는 매년 제등행렬후에 수 없이 버려진 많은 연등을 집합한다. 하지만 왜 그 연등이 버려져야 하는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거리 곳곳을 돌며 버려진 연등과 쓰레기를 달콤히 치워주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총칭하게 버려진 연등은 바로 우리 불자들의 잘못된 신행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같이 보이는 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18일 불자 안미선씨(불교자원봉사연합회 환경팀)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계사와 안국동 일대에 구기고 짓밟혀

버려진 연등 만신창이로 버려진 연등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 안씨는 "불과 몇시간 전만 해도 부처님처럼 소중한 여긴 연등을 제등행진이 끝났다고 쓰레기통에 내팽개치는 일부 몰지각한 불자들이나, 그 광경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불자들 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저녁 동대문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서울 도심거리는 장엄한 연등불로 환히 밝혀졌다. 지난해 할아버지도 관광 나온 외국인도 각각각의 아름다운 연등과 그 연등만큼이나 아름다운 불자들의 모습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행렬을 따라 걷기까지 했다.

이 은 자 <취재1부 기자>

목탁 소리

제 등 행진에 이어 밤 10시가 넘도록 우정국로에서 펼쳐진 연등축제 한마당의 열기는 남녀노소, 승과 속이 하나된 화엄의 세계가 자재였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후 거러 여기저기에는 찌그러지고 부서져 내던져진 연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그러나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jele@buddhapia.com)

# 열린마당

동국대 불문연 불국학술회의 2000년대를 여는 한국불교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목정배)은 개교기념일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000년대를 여는 한국불교'를 주제로 13일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한국불교의 교단 수행 복지 포교 네 분야의 회고와 전망을 통해 2000년대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각 발표문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 교단연구 암도(前 조계종 교육원장)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중흥상 종단 자체가 승려와 신도의 사부대중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중회나 연합회는 없다. 조계종은 종단이라기 보다는 승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조계종단의 담판과제는 첫째 승가의 생활제도를 개선하여 여법한 승단을 만들



### 승가제도 개선 청정승단 확립

고 들깨는 승려들의 의식을 개혁하여 청정승가를 재창출해내는 것에 있다. 중흥의 임기를 종신제로 하고 동진출가자로서 경율론 삼장에 밝은 대종사를 추대하여 행정에 절대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종단의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총무원장은 문종과법을 떠나서 공심등은 종사급으로 중앙총회와 본사주지회가 합동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본사주지는 교단 내의 장로와 중진들이 모여서 뽑도록 하면 오늘날과 같은 폐단이 없을 것이다.

미래의 세계는 누구나 다 미지의 세계라고 한다. 이 미지의 2000년대를 맞이하는 한국불교의 모든 승려들은 대참회를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대승단결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지성인들은 동북아시아의 정신문화로 이목을 돌리고 있다. 정신세계의 페러로 그 활로를 찾기 위하여 선불교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한국불교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참사람(불보살)을 제시해야 한다.

### 포교 성탁(불국사 주지)

포교 방향의 첫째는 교학의 발전이 바로 포교의 밑거름임을 믿는 일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변화된 환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현대사회에 맞게 풀어 알기 쉬운 언어로 널리 펼쳐야 한다. 들깨 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포교를 강화해야 한다.



### 포교저변 확대와 신앙의 실천

불교가 새로운 세계에도 우리민족과 사상을 주도하는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정수행과 승종진작 신도의 교육과 조직화 불교문화를 포함한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각종 사회활동을 통한 기여의 증대가 필요하다. 셋째 포교 저변의 확대와 신앙의 실천이 필요하다. 교육기관·복지기관의 확대, 의료기관의 설치 등 간접포교활동을 통한 포교 저변의 확대는 잠재적 불자를 실질적 불자로 전환시키고, 기존의 불자를 신앙의 실천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불교의 사회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포교는 불교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아동심리 청소년 지도 등 관련 분야의 연구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세계화에 발맞추어야 한다. 포교활동 역시 열려진 정보화 사회를 심분활용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 불교복지 혜도(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장)

불교복지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예를 든다면 단순히 장애가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치료와 직업 재활 사회복지 등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야 서비스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불교복지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불교복지는 일반사회복지의 방법과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 복지인력 양성등 전문성 강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불교복지 활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들을 양성해낼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불교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이용의 활성화도 구된다. 관련기관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복지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활용이 가능한 충분한 정보가 축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단과 각급 사찰에서 더욱

활발한 사회복지활동과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각 단위사찰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종단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불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교 복지기관의 활동을 원조할 수 있는 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수행 권단준(불교문화연구원)

불교인이 많다고는 하나 합리적인 교리에 호감을 가지거나 단순히 정감을 가지는 정도의 신자가 많고 수행을 한다고 해도 정법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행이란 본질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불성이 그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 구복신앙 탈피 보살행 펼쳐야

따라서 깨달음의 세계는 언제나 보살의 수행에 의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참생명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부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보살행은 주변환경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몰려 맹목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여 자기 자신을 참되게 지키고 실현해 나아가길

을 열어줄 수 있는 수행법이다. 보살행은 현재의 불교 수행에서 구복신앙·신비체험·소승적 차원의 수행을 탈피하여 현실 세계 속에서 인간이 처한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바로 깨달음을 실현하여 자비를 실천하는 부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행법은 고학력 시대에 각종 사회교육과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수준 높은 지식을 갖춘 합리적인 현대인에게 종교를 초월하여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범우사 |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 전화: 717-221 | 팩스: 717-0429 | 인터넷: http://www.bumwoosa.co.kr | 범우문고 2,000권

혼탁한 마음의 심타리를 풀어주는 정화수 같은 책

# 無所有

무소유

다시, 그 청정한 울림  
일상에 가려져 있는 명정한 심의 진리  
한 구도자의 묵시리로  
신사의 종경소리처럼 찾아온다

범우(范愚)소남 / 강연도 산문, 희곡만이 아닌 주인공 있는 호우자를 빌려 홀로 달강을 구하고 빙글 돌며, 향연의 도와 향기로운 심을 살피고 자신 스스로 30여 년의 심묵과 무수히 걸지않고 이 세대의 가장 순수한 정신으로 승공하고 있다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 부처님 마슴처럼 ...

# (주) 임창공영

대표 임창규

### 임직원 일동

■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52-27  
TEL : (02)646-9184